

일본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과 전망

- 2015.4월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통계(속보치)에 의하면, 무역수지가 2,293억 엔의 흑자를 기록
- 무역수지 흑자는 2012년 6월 이후 33개월 만에 수입 감소에 따른 흑자로 유가와 환율 등의 가격변수의 향방에 따라 다시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
- 특히, 일본의 경제구조가 수출입국형에서 투자입국형으로 바뀌고 있어 J커브효과에 의한 수출물량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
- 2015.3월의 무역수지 흑자화가 아베 정부가 기대하는 J커브 효과의 본격화 신호 인지 아니면 일과성 현상으로 끝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임

□ 33개월 만에 무역적자 탈출

- 2012년 6월 이후 지속된 일본의 무역적자 행진이 멈추고 33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2,293억엔 흑자로 전환
 - 전년동월의 1조 4,501억엔 적자에서 흑자로 크게 반전
 - 전월의 4,250억 엔의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

□ 흑자전환의 최대 요인은 대폭적인 수입의 감소

- 흑자전환의 최대 요인은 전년동월에 비하여 수입액이 크게 줄어든데 있음
 - ‘15.3월 수입은 6조 6,981억엔으로 전년동월비 14.5% 감소
 - 일본의 총수입에서 30% 정도 점하는 원유 등 광물성연료의 수입액만 17조 6,559억엔으로 전년동월비 36.5% 감소
 - 엔저가 수입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, 이를 상쇄하고 남은 만큼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수입가격이 하락
 - 광물성연료 외에도 철강과 비철금속, 전기기기, 자동차 등도 일본의 국내 경기가 크게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수입이 감소

- 한편, 3월의 수입은 증가했는데, 이는 전월에 비해서는 유가하락이나 엔화환율의 변동 폭이 적었기 때문에 변동 폭이 컸던 전년동월만큼 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음을 시사

□ 수출은 물량증가와 엔화표시 수출가격 상승으로 증가

- ‘15.3월 수출액은 6조 9,274억엔으로 전년동기비 8.5%증가했는데, 이는 수출물량, 수출가격 모두 기여함
 - 3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119.86으로 작년 3월에 비하여 17%이상 엔저
 - 수출증가율 8.5%를 가격효과와 물량효과로 나누어 보면, 가격효과가 5.1%로 물량효과 3.5%를 상회, 엔저에 의한 수출금액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
 -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의 가격하락폭이 컸음

□ 對美 자동차 수출이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

- 수출물량이 증가한 것은 자동차로 승용차·버스·트럭 등 50만 4,426대로 전년동월비 1.9% 증가
- 아베노믹스의 실시 이후 자동차분야의 수출금액은 늘어났어도 물량은 늘어나지 않았는데, 드디어 수출물량 증가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동월보다 10.5% 증가

□ 전기기기는 아직까지 수출물량효과 가시화되고 있지 않음

- 부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전기기기분야에서 수출은 아직 여의치 않음
 - 전기기기의 수출은 1조 1,657억엔으로 전년동월비 8.5% 증가했으나, 수출물량은 모두 감소
 - 영상기기는 16.8% 감소, 음향기기는 15.35% 감소, 반도체전자부품은 4.0% 감소
- 엔저에 의해 기업들의 채산성이 개선되고 있으나, 이것이 수출물량의 증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

□ 수출상대국별 수출 특징

-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對美 수출이 호조
 - ‘15.3월 對미국 수출액은 21.3% 증가, 4개월 만에 2자리대의 증가율을 기록
 - 작년 12월 이후 엔저에 의한 가격효과에 더해 수량도 증가로 반전함으로서 3월의 수출물량이 5.9%나 증가
- 對중국 수출은 둔화경향이 지속
 - ‘15.3월 수출금액은 3.9% 증가했으나 수출물량은 0.8% 감소, 2개월 연속 마이너스
 -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인 중국경제가 부진함에 따라 미국경제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음

□ 對한국 무역흑자도 확대

- ‘15.3월 일본의 對한국 무역흑자는 2,302억엔으로 전년동월비, 전월비 모두 확대
 - 전년동월비(‘14.3월)로는 1,840억엔에서 462억엔 확대
 - 전월비(‘15.2월)로는 1,848억엔에서 454억엔 확대
- ‘15.3월 對한국 수출은 4,870억엔으로 전년동월비 4.4% 증가, 전월비로는 14.6% 증가
- ‘15.3월 對한국 수입은 2,780억엔으로 전년동월비 8.3% 감소, 전월비로는 7.5% 증가

□ 전망

- 이슈는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정착될 것인가 하는 것임
 - 일본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
 - 과거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2013년도 13조 7,500억엔에 비하면,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나 2014년도에도 1,343억엔의 적자를 기록

-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은 원전 중단에 따른 원유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량 증가에 있으나, 에너지절약의 확대로 전력사용량 감소 등 원유와 LNG의 수입량증가 억제
 - 작년 말부터 대폭적인 유가하락까지 겹쳐 수입금액도 크게 감소
- 유가가 상승세로 반전할 경우, 다시 수입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
 - 엔저 경향이 계속되는 한, 에너지비용이 무역수지구조에 큰 부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음

□ 수출입국형에서 투자입국형으로의 경제구조 향방

- 엔저가 수출가격 하락효과라는 비용면에서의 이점만을 가져온다면 문제는 없음
- 아베노믹스 실시 이후,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J커브 효과에 주목
 - 엔저가 되면 처음에는 수입품의 가격상승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나,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것임
 -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J와 같은 형태를 그리게 된다는 점에서 J커브효과로 불리고 있는데, 2년 반이 경과한 지금도 J커브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
- 한편, 일본기업들은 최근 10년 동안 제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엔고대책을 강구해오고 있어, 엔저가 되어도 일본의 수출이 늘어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음
 - 일본의 경제구조는 수출입국형에서 투자입국형으로 이미 바뀌어 버렸다는 것임
- 역으로 부품을 해외공장에서 들여오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오히려 엔저로 가격이 상승,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예도 적지 않음
- 일본 국회에서는, 아베노믹스에 의한 엔저가 반드시 일본에게 수출증가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며, 오히려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을 따름이라는 야당의 원들로부터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
- ‘15.3월의 일본의 무역수지흑자화가 아베 정부가 기대하는 J커브 효과의 본격화 신호인지 아니면 일과성 현상으로 끝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임. 끝